

■ 여야 4대강·세종시 '예산전쟁' 돌입

# “정기국회내 처리” Vs “강행맨 보이콧”

## 시작부터 난항... 법정시한 넘길 수도

국회가 12일부터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올해 예산안 처리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상임위가 예산심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벌써부터 예산심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교육·복지·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경우에 따라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국권의 관측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벌 퍼주기 예산', '재정 파탄 예산', '민생 외면 예산', '지방 죽이기 예산', '분식 예산' 등으로 규정하고 '예산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예산심에 착수하며, 여당이 4대강 예산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이나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강 예산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만 남기고 대부분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정부가 배정한 3조5천억원을 1조 원 수준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삭감액을 아동과 교육, 노인,

중소기업, 일자리, 지방 예산에 집중 투입하도록 상임위별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위를 비롯, 환경노동위, 농림식품수산업 등 4대강 유관 상임위를 비롯, 정적 상임위에서는 파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사업의 주요 예산이 편성된 국토해양위와 예결특위의 예산 심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서민이 사느냐 죽느냐, 아름다운 국토를 절단내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예산”이라며 “끝까지 (여당을) 설득하되 마지막엔 투쟁까지 불사해야 한다”고 강경 기조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의를 시작한 12일 이번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은 “예산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은 국경감사 등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남은 기간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총집중시켜야 한다”며 “특히 세종시 문제로 당의 추동력이 분산되는 사이에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데 깊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은 “예산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은 국경감사 등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가균형발전 촉구” 12일 오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세종시 관련 정부규탄 집회에서 원혜영의원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첫발 댄 한나라 '세종시 특위'

### 임명장 수여식 갖고 첫 회의 총청민·국민 의견 수렴 착수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원회'(가칭)가 12일 첫걸음을 뒀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정의화 위원장을 비롯해 권경석 이사철이 계진 전여욱 의원 등 참찬위원들에게 해법 도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인사말에서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의 역량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은 한나라당이 세종시와 같은 국가적 현안을 어떤 리더십과 비전을 갖고 풀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진 특위 첫 번째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해법을 만드는 게 특위의 목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며 “수정안이 나오면 특위의 일차적인 시한은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특위의 활동 방향과 관련, 세종시 해당 지역인 충남 공주·연기 주민은 물론 인근 충북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충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특위는 또 매주 화요일 정례 조찬 회의를 열어 여론 수렴 작업을 점검키로 했으며, 오는 19일에는 세종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척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다만 세종시 추진 계획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정부의 수정안이 제출되면 활동을 종료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丁-鄭 일본서 '포스트 DJ' 경쟁

(세균) (동영)

### 도쿄·오사카 DJ 추모행사서 각각 추도사 개별 일정서도 미묘한 경쟁전 펼칠 예정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일본에서 '포스트 DJ(김대중)' 경쟁을 벌이게 됐다.

12일 일본으로 출국한 정 대표와 정 의원은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행사에 참석한다.

실제로 도쿄 아사히홀에서 13일 개최되는 추도회에는 정 대표가 추도사를 맡을 예정이며 14일 오사카 추도회에선 정 의원이 추도사를 맡게 됐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추모 행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포스트 DJ'를 놓고 양 측의 경쟁전이 다시 이뤄

지는 형국이다.

특히, 양측은 개별 일정에서도 미묘한 경쟁전을 펼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날 낮 도쿄에서 권철현 주일대사와 오찬을 함께 한 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민주당 간사장과 만나 양당 교류 방안과 북핵문제 등 한일간의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오자와 간사장과 의면담에서 올해 5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의 개혁 정치 노선에 공감을 표시하고 양당간의 정례적 교류를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한국인간 중앙본부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해 재일교포 사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반면 정 의원은 13일 일본 외무성에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과 만나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 해결 등 한일간의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오카다 외상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대통령후보인 박정호 후보의 공화당 유세장소를 격려차 방문, 연단에 올라설 정도로 정 의원과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련의 '포스트 DJ'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지원, 천정배 의원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의 개혁 정치 노선에 공감을 표시하고 양당간의 정례적 교류를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

## “박연차, 盧 전대통령 6차례 만났다”

### 문용욱 전 총 실장 증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박연차 전 태광산업 회장과 6차례 사적으로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정몽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문용욱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회장이 청

와대에서 3차례, 골프장에서 2차례, 진해공군회관에서 1차례 만났다고 말했다.

문씨는 “박 전 회장이 먼저 요청해서 접견한 적은 없었다”며 “부부 동반 만남도 있었고, 청와대 만찬에서는 거의 술을 같이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는 2007년 봄 노 전 대통령이 박 전 회장 소유의 경남 김해 정산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친 것이 재임기간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덧붙였다.

었다.

문씨는 특히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의 사적인 약속을 잡는 것은 (총무비서관실이 아니라) 제1부속실 관장 업무였다”라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박 전 회장에 백화점 상품권 9천400만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혐의에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정연주 전 KBS 사장

### 해임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임기가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부 사유에 대해 경영성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2일 대입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미국 SAT(미국 대학입학수능시험) 제도는 한 학년에 6~7차례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한번 참고 해 불만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능일인 오늘 아침에 여의도고에 들러 학부모와 학생들을 격려하고 왔는데 1년에 한 차례 단 한번의 시험으로 결정하는 현행 대입제도가 적절할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의 대안은 단 한번의 수능으로 대입을 결정하는 현 방식 때문에 고액 과외 등 사회적인 문제점을 유연한 방식을 도입해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풀이됐다.

정 대표는 또 “사교육비 부담이 이미 큰 문제로 대두됐고, 수월성 교육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열린 마음으로 개선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마무리도 전략이다! 막판 뒤집기! "김영" - www.kimyong.co.kr

상위권 대학편입 D-day 40일 합격완성

"FINAL 총정리" (12월 1일 집중강좌)

실력있는 학원은 합격자로 말한다! 10명중 7명이 김영출신 합격자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고개 동일한 강재 동일한 시스템

★ 기출문제는 물론, 예상문제를 통해 고난이도까지 정복한다. ★

2009년 편입 김영출신 합격자 일반편입 현재까지 5,849명 수확전형 현재까지 1,450명

철저한 담임제도 1:1철의상담 입일출석점검

무료특강 무료특강

시사특해 기초문법

개강 12월 1일

2010 편입영어 실전대강좌 편입영어 이론+확장개강

편입영어 이론+확장개강

우리나라에서 대학편입을 가장 많이 시키는 곳!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 222-8088 실시간 문자상담 010-7766-1254